

질의와 응답

물음 '개가 고기를 녀죽 받아먹었다'의 밑줄 친 부분을 '녀죽'으로 써야 하는지 '늣죽'으로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늣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고 '녀죽'으로 나와 있는 사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조혜정,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답 국어 사전에 따라 '녀죽'을 옳은 말로 올린 경우도 있고 '늣죽'을 옳은 말로 올린 경우도 있습니다. '녀죽'과 '늣죽'으로 처리가 다른 것은 '녀죽/늣죽'과 '늣다'의 관계를 사전마다 달리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늣-'과 관련이 없다면 '녀죽'으로 쓰는 것이 옳고, '늣-'과 관련이 있다면 '늣죽'으로 쓰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21항'을 보면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뎡개(뎡+개), 빛갈(빛+갈)'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떨어진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예로 '녀치, 납작하다' 등이 나와 있는데 이들은 어원적으로는 '늣(廣)-'과 관계가 있는 말들이지만 그러한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늣치'가 아니라 '녀치'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녀죽'과 '늣(廣)-'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면 '늣죽'이 되지만 그 관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면 '녀죽'으로 적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녀죽'은 '무엇을 받아 먹거나 말대답할 때 입을 녀름 벌렸다가 닫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현재로는 '늣(廣)-'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녀죽'이 맞는 말입니다.
(정희창)

【물음】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서 실망했어요?”와 “기다리던 사람이 안
 니어서 실망했어요?”가 모두 가능합니다. ‘-라서’와 ‘-어서’는 같은 의미
 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윤경, 성동구 성수동)

【답】 ‘-라서’와 ‘-어서’는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타나는 환경이 다를 뿐입니다. ‘-라서’는 ‘이다’와 ‘아니다’의 어간 다음에 나타나는 반면에 ‘-어서’는 모든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먹다’에 ‘-어서’가 연결되면 ‘먹-어서’가 되지만 ‘이다’와 ‘아니다’에 연결되면 ‘이-라서’, ‘아니-라서’가 되거나 ‘이-어서’, ‘아니-어서’가 됩니다.

이처럼 ‘이다’와 ‘아니다’의 어간 뒤에서 ‘-라서’가 되는 일은 15세기 중세 국어에서부터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중세 국어에는 ‘이다’의 어간에 몇몇 어미가 연결될 때 어미가 변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와 ‘-어사’, ‘-음’ 등의 어미가 연결되면 ‘이+다→이라’, ‘이+어사→이라사’, ‘이+음→이름’과 같이 됩니다. ‘아니’에 연결될 때도 동일한 변화를 보입니다. ‘아니’에 어미가 연결될 때는 ‘이다’의 어간이 중간에 끼어들어 ‘아니+이+다→아니라’와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세 국어에서 ‘아니’가 현대 국어와는 달리 명사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도 명사 ‘밥’과 ‘-다’가 바로 연결될 수 없고(*밥+다), 중간에 ‘이다’의 어간이 있어야 연결될 수가 있는 것과(밥+이+다) 마찬가지로 현상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이다’와 ‘아니다’의 어간 다음에 ‘-라서’가 연결되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는 중세 국어와 달리 ‘이다’에 ‘-어서’가 연결될 때 ‘이어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다’와 ‘아니다’ 다음에는 ‘이라서/이어서, 아니라서/아니어서’가 모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창)

【물음】 ‘표준어 규정 제7항 다만2’를 보면 ‘수컷’을 의미하는 접두사 ‘숫-’이 쓰인 말로 ‘숫양, 숫염소, 숫쥐’가 나와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을 ‘ㅇ’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는 ‘숫-’을 쓸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윤장규, 종로구 명륜동)

【답】 그렇지 않습니다. ‘숫-’은 ‘숫-양, 숫-염소, 숫-쥐’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양, 염소, 쥐’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수-’를 써야 합니다. ‘오’이나 ‘즈’으로 시작하는 ‘오리’나 ‘제비’의 경우에도 ‘수-오리’와 ‘수-제비’가 됩니다. 한마디로 ‘숫-’은 ‘양, 염소, 쥐’에만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음 ‘너는 그대로, 나는 이대로’라는 문장에서 ‘대로’를 붙여 쓰는 것이 옳습니까? (이인경, 경북 경주군 양남면)

답 위의 예문에서 ‘대로’는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조사인데 ‘그’나 ‘이’란 체언 뒤에 붙여 씁니다. ‘대로’가 ‘범대로, 약속대로’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로 보아 붙여 쓰지만, ‘아는 대로 말한다’,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 씁니다. ‘대로’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를 더 예로 들면 ‘규칙대로, 뜻대로’ 등이 있고,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본 대로, 날이 밝은 대로, 굽을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등이 있습니다.

이 ‘대로’의 용법과 유사한 경우로 ‘만큼’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만큼’이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키가 전봇대만큼 크다’처럼 체언 뒤에 붙어서 ‘그런 정도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볼 만큼 보았다’, ‘애쓴 만큼 얻는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서 ‘그런 정도로’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김옥순)

물음 ①‘젊다는 게 뭐가’, ②‘젊다는 게 뭐냐’, ③‘젊다는 게 뭐야’ 라는 문장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두한, 서울시 강동구)

답 질문하신 세 문장은 결국 밀줄 친 ‘뭔가, 뭐냐, 뭐야’란 종결 어미의 차이인데, 국어에서 대우 표현의 방법 중 문법 형태에 의한 차이를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국어 경어법은 여기에서처럼 어미나 조사와 같은 문법 형태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이와 달리 존대 또는 비존대를 나타내는 특징의 어휘에 의해서 실현되기도 합니다.

위의 세 문장은 기본적으로 말하는이(話者)가 듣는이(聽者), 즉 다른 대상 인물에게 갖는 심리적 태도를 보여 주는 언어 표현들입니다. 말하는이가 자신과 관

련된 영역 안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한 화자 자신의 대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종적인 상하관계와 횡적인 친소관계의 함축성을 나타냅니다.

먼저 위의 세 문장 ①②③ 청자의 비어 있는 자리에 문장 ①' ②' ③'처럼 청자의 신분이나 모습을 그려 넣을 수 있습니다.

- ①' (여보게, 자네) 젊다는 게 뭐가?
- ②' (애들아, 셋째야) 젊다는 게 뭐냐?
- ③' (철수야, 너) 젊다는 게 뭐야?

문장 ①은 '여보게, 자네'가 어울리는 것으로 보아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로서, 함부로 하대하기 어려운 아랫사람(성인이 된 친척, 제자와 같은 아랫사람, 또는 동연배)에게 '하계체'의 예사낮춤으로 묻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계체'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상 장년층 이상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제한적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문장 ②는 '애들아, 셋째야' 처럼 어른이 아이에게 말할 때나, 선생이 어린 제자에게, 아버지가 자손에게 말할 때처럼 '해라체'의 아주낮춤으로 묻는 말입니다. 이들 '하계체'나 '해라체'는 모두 청자를 존대하는 말투는 아니지만 하계체의 '뭔가'가 해라체의 '뭐냐'보다 청자대우의 등급에서 다소 대우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장 ③은 비존대 또는 하대의 반말입니다. 이 반말 '해체'는 '하계체'나 '해라체'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낮춤 일반에 두루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문장을 청자 등급의 차이로 살펴 보았는데, 청자 대우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갈라 볼 수 있습니다. 문장 ①②의 격식체는 주로 공적인 자리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자리, 모르거나 그리 친하지 않은 사이 등에서 쓰이는 말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장 ③의 비격식체는 주로 사적인 자리, 대등한 관계가 위주되는 자리, 서로 친하고 허물이 없는 사이일 경우에 쓰이는 말씨입니다. (김옥순)

[물음]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 주십시오'에서 '국번이오니'는 경양법 선어말 어미 '-오'를 사용했으므로 맺음 말을 '확인하옵시고 걸어 주사이다'로 바꾸어야 경어법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바른 표현이 아닌지요? (조병진, 대전시 서구 용문동)

답 우리말은 경어법이 복잡한 언어로서 그 문법적인 구분을 개략적으로 살펴 보면 주체를 높이는 존경법, 말하는이와 듣는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하는 공손법, 지금은 그 용법을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없지만 행동의 주체, 객체 그리고 말하는이와 관계를 고려해 사용하는 겸양법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용 어휘에 따라 경어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말을 골라 쓰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겸양법은 객체 존대법이라고도 하는데 문장의 객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의 지시 대상에 대해 화자가 존대의 의도를 나타내는 경어법입니다. 현대 국어에서의 겸양법은 일정한 어미에 의해 실현되지 못합니다. 다만 객어가 부사어일 경우 부사격 조사 ‘-께’로 실현되거나 어휘적 방법으로 실현됩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 전화 안내문의 ‘-오-’는 겸양법의 선어말 어미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걸어 주사이다’는 듣는이를 극히 높여서 명령할 때 쓰는 표현들로서 이들은 ‘합쇼체’ 또는 아주높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합쇼체’에는 ‘걸어 주사이다’와 같은 표현이 잘 쓰이지 않고 대신에 ‘주십시오’가 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바른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국번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 주십시오’는 국어의 올바른 경어법에 틀림이 없는 쓰임입니다. (이준석)

물음 요즈음 ‘음식’이라는 한자어 대신에 ‘먹거리’라는 새로 만든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먹거리’보다는 ‘먹을거리’라고 해야 바른 우리말로 생각합니다. ‘먹거리’가 우리 국어의 일반적인 조어법에 비추어 바르게 만들어진 말인지 궁금합니다. (문대영, 대법원 공보관실 사무관)

답 우리말에 있는 낱말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먹거리’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먹거리’의 구성 성분으로 동사의 어근 ‘먹-’과 사전에 의존명사로 분류된 ‘거리’의 결합이 우리말에 흔히 볼 수 있는 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의하셨습니다.

‘먹거리’를 국어 조어법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는 견해는 ‘쭉쇠, 감발, 묵발, 묵김치, 늦잠, 늦벼, 늦더위’ 등과 같은 ‘동사 어근+실질 명사’의 복합형을 우리말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고 ‘땀밥’은 새로 만든 말이지만 지금은 널리 쓰

이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리'가 나타나는 '불거리', '입을거리'의 다른 예에서 '거리'는 그 선행 요소로 관형형을 취하고 있으므로 '먹거리'는 '거리'가 국어의 어휘에 일반적으로 분포하는 현상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말임은 분명합니다. 이 점에서 국어의 조어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로 '먹을거리'가 우리 국어의 조어법에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 들어온 전문적인 외국의 학술 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기도 하고 우리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새로운 말을 만들고, 전에 없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필요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미 있던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일지라도 언중이 그것을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을 가진 말로 바꾸어 의미를 보강하려고 할 때 새로운 말들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타난 말들은 언중들의 호응을 받아 그 지위를 굳히는 것도 있고, 잠시 쓰이다가 잊혀지는 것도 있으며, 처음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해서 일반화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새로 만든 말에 생명을 부여하는 힘은 그 말을 사용하는 언중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먹거리'를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다면 이는 새로 만든 말이 언중들의 호응을 받아 점차 세력을 얻어 가는 중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준석)